

# 불만 제路 모의고사 5회

생활과 윤리

점수

/ 50

현철샘 제작

1

1.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큰 도(道)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재화가 헛되어 버려지지 않지만 그것을 결코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p> <p>을: 위대한 도(道)는 이름이 없으며 위대한 변론은 말이 없다. 위대한 인(仁)은 편애하지 않고 위대한 검손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위대한 용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흔히 들어 다보이면 도가 아니고 말도 변론만을 위한 것이면 부족하다. 알지 못함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p>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 갑만의 입장</p> <p>B :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모든 만물이 지닌 생명력을 도(道)의 도덕적 표현으로 본다.  
 ㄴ. B: 시비 판단의 분별을 넘어서는 정신적 절대 자유를 추구한다.  
 ㄷ. B: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추구한다.  
 ㄹ. C: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心齋), 천리(天理)를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 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자신에게 얼마만큼 포기하도록 강요하느냐는, 우리가 막을 빈곤에 상 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공리주의 자에게는 유행에 맞는 옷, 값비싼 저녁, 더 큰 집, 화려한 자동차 등은 극단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p> <p>을: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p>
(나)	

< 보기 >

ㄱ. A: 선진국은 자국민이 해외 원조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 안되는가?  
 ㄴ. B: 원조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안되는가?  
 ㄷ. B: 모든 사람이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갖는 것은 안되는가?  
 ㄹ. C: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원조에 있어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 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 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 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을: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군비의 과잉 지출이라 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전쟁이 선택된다.

- ① 갑: 모든 폭력에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구체적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갑: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경유해 직접적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③ 을: 공화적 체제는 시민의 요구로 인해 전쟁의 선포가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  
 ④ 을: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⑤ 갑, 을: 어떤 경우라도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갑: 태아는 다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생명권을 갖는다. 임신 부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도, 임신부는 자기 생명을 위해 무고한 부관자민 태아를 죽일 권리가 없다.

을: 태아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지만 임신부의 생명권보다 우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한 필요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다른 요인들 에 양보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

병: 태아는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사려 없 이 이루어지는 임신 중절도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에게	반론 내용
①	갑	을	임신부의 생명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
②	갑	병	여성은 언제든지 임신 중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③	을	병	태아에 대한 여성의 권리 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④	을	갑	태아의 생명권은 일반 시민의 생명권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⑤	병	을	태아에 대한 여성의 권리 행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5. (가)의 관점에서 제시할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삼라만상은 서로 원인과 결과로 관련되어 있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즉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저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된다. 성자(聖者)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자비를 베푼다.</p>
(나)	<p>(㉠)은/는 나이 든 사람[老]을 나이 어린 사람[子]이 떠받들고 있는 형상으로, 상하 인간관계의 질서이다.</p>

< 보기 >

ㄱ.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ㄴ. 모든 인간관계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근원적인 규범이다.  
 ㄷ. 내 부모와 남의 부모의 구분 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ㄹ. 사람이 여러 삶(生)을 거치면서 맺는 관계 속에 실천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갑, 을 사상가에 대한 평가 중 갑에 대한 평가는 부정의 대답을, 을에 대한 평가는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4) [3점]

(가) '어떤 행위가 옳은가?'는 개별적 행위가 타당한 도덕 규칙과 일치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규칙의 타당성이란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본래적으로 더 좋은 것을 많이 산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어긋나면 옳은 행위가 아니다.  
(나) 신(神), 즉 자연은 인간의 영혼을 육체에서 자유롭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신들이 하는 일들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신을 따르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①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에 대한 원칙이나 규칙을 탐구하기 용이한가?
- ② 인간은 보편적이고 가변적인 법으로서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 ③ 행위의 옳고 그름은 어떤 행위가 인격신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가?
- ④ 서로 충돌하는 도덕적 직관에 의한 판단을 적절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 ⑤ 도덕 판단 과정에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의 규칙들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는가?

7. 갑, 을 사상가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

갑: 참된 사람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세상에 나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저승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그는 삶을 받아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잃어도 기뻐한다.  
을: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論)는 참으로 이익을 주고, 청정 범행의 시작이며,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거위함으로 인도하고, 욕망의 빛바래므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과정인가?	O	X
②	삶과 죽음의 순환이 의도적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O	O
③	자연의 이치인 삶은 기(氣)의 생성, 죽음은 기의 소멸로 보아야 하는가?	X	X
④	삶과 죽음을 연기(緣起)의 관점에서 상호 연결된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O	X
⑤	삶과 죽음이란 불멸할 수 없는 존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되는 과정인가?	X	O

(O : 예, X : 아니요)

8.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컴퓨터와 새로운 정보 기기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정보 리터러시의 중심이 '컴퓨터 리터러시'와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로 옮겨 가고 있다. 새로운 정보 기기와 컴퓨터가 속속 등장하면서, 이들 새로운 기술과 정보 시스템에 따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보의 해독력을 갖지 못하는 인간과, 컴퓨터와 정보 기기에 제대로 융합하지 못하여 친화성이 결여된 인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리터러시'의 격차는 취업 기회의 선별뿐만 아니라 넓게는 현대인의 사회적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_\_\_\_\_ (㉠)

< 보기 >

- ㄱ.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ㄷ.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생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ㄹ. 정보의 취약한 사람들도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3점]

(가)

갑: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활동이 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을: 국가는 개인의 절대적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것만이 국가의 유일한 목적이나 목표이다. 만약 국가가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시도한다면, 그 정책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며, 국가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병: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 갖게 되면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나)

< 보기 >

- ㄱ. A: 인간의 자유로운 연합체는 생산력이 고도화된 공산 사회에서 성립되는가?
- ㄴ. B: 거래에 의한 취득과 양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 ㄷ. C: 정책적 원리는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 할지를 규정하는가?
- ㄹ. D: 상호 교섭에서의 옳음은 이익과 손해 사이에 비율과 비율의 동등함을 따라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3점]

(가)

갑: 형벌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하며, 사형을 대체한 중신 노역형은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  
을: 형벌의 법칙은 정언 명령이다.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살인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병: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나, 범죄자가 사회 전체를 격분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나)

< 보기 >

- ㄱ. A: 형벌은 국민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ㄴ. B: 형벌은 범죄자에게 그의 범죄와 동등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다.
- ㄷ. C: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ㄹ. D: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형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진술에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들이 '시민적 품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민적 품성은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시민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은 행위의 상호 의무와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의 규범은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반칙과 부패는 감소하고, 호혜성과 생산성은 증가한다.

진술	학생	갑	을	병	정	무
사회적 자본 형성이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차단의 선결조건이다.			V		V	V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V	V	V	V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법적 규제가 자율적 규제의 경향성보다 높아진다.	V			V	V	V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 스스로 기회주의적 처신과 부정행위를 할 동기를 감소시킨다.		V	V			V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행위를 못하게 하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이러한 책임은 다른 존재에 대한 염려이자 예상된 악의 위협에 대한 근심이다.

을: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합의한 규범만이 타당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보다 명확하게 말한다면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당사자에게 비경제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 행위의 결과는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가 될 수 있다면'이라는 명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 현재대는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실천하는 비호혜적인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을은 ㉢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 답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동등하게 고려될 경우에 한하여 규범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 갑은 다른 생명체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사실로 보았고, 을은 상호 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만이 보편타당한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종교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삶의 의미와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과학은 실험과 같은 객관적인 방향으로 자연 과학적 진리를 탐구한다. 종교와 과학이 서로 별개의 영역에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잘 유지될 때 둘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을: 종교가 과학적 지식을 거부한다면 대중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과학 역시 불완전한 지식이므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종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지만 상호 배타적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 보기 >

ㄱ. 갑은 종교와 과학이 충돌되지 않고 독립된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ㄴ. 을은 종교와 과학이 상보적 관계로 조화를 이루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객관적 지식만이 진리의 진정한 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 모두 과학적으로 확인된 종교적 지식만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든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을: 의식이 있든 없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과 선(善)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이루고, 이것은 모든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병: 오늘날 환경 위기는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자연을 지배하려는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 동식물중,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인식할 것을 추구하는 '큰 자아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나)

< 범례 >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보기 >

ㄱ. A :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ㄴ. B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생명 종(種)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인가?  
 ㄷ. C :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권리의 주체가 되는가?  
 ㄹ. D : 모든 유기체의 본질적 가치는 생명의 연결망 내에서 파악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을의 입장에 비해 갑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어떤 사회에 통일된 문화가 없다면 구성 집단 간의 결속력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서 단일한 언어, 단일한 문화 전통, 단일한 교육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류의 문화적 전통을 주류 문화 속에 녹여 넣고 소수자들이 다수자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을: 사회에 다양성이 없으면 그 사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소외되거나 억압되는 집단이 있다면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전통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동등하게 교육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들이 사회 속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X: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 공존을 강조하는 정도
- Y: 이민자 문화의 문화 정체성 포기를 강조하는 정도
- Z: 문화를 단일성 논리에 따라 바라보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3점]

갑: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서로를 겸하여 사랑하고(兼相愛) 서로 이익을 나누므로(交相利) 상을 얻는다.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자는 서로 구별하여 미워하며, 서로 해치므로 반드시 벌을 받는다. 천하의 모든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가) 을: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거느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권병(權柄)뿐이다. 두 가지 권병이란 형(刑)과 덕(德)이다. 벌을 내려 죽이는 것이 형이고, 칭찬하여 상을 주는 것이 덕이다. 신하된 자는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 받는 것을 좋아하여, 군주가 직접 형을 집행하고 덕을 베풀면 모든 신하들은 군주의 위엄을 두려워하며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나)

- < 보기 >
- ㄱ. A: 군주는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ㄴ. B: 군주는 사치를 삼가고 생산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ㄷ. B: 군주는 무차별적 사랑으로 서로의 이익을 나누도록 통치해야 하는가?  
 ㄹ. C: 군주는 법(法)과 술(術)을 통해 선한 본성을 회복에 힘써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갑, 을, 병에 대한 질문 중 모두 올바른 대답을 한 것을 고른 것은? ( ) [3점]

갑: 종간의 도덕적 차이에 따라 동물을 차별함을 옹호하는 중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다.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의 것을 더 고려하는 차별은 정당하다. 우리가 명료하게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모두 중 차별주의자이다.

을: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은 모두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권리는 자의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삶의 주체라면 어떤 존재라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

병: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쥐는 발에 채이지 않을 이익관심을 갖는다. 발에 채인다면 그는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대답		
		갑	을	병
①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인가?	○	×	×
②	인간은 다른 종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가?	○	○	×
③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	○	○
④	인간은 동물을 합부로 학대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지니는가?	×	×	○
⑤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 있는 존재가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	○	×

(예:○, 아니요:×)

18.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주장	㉠
㉠에 대한 반론의 근거	1. 생식(生殖)에서 남녀 간 상호 의존성이 약화될 수 있다. 2. 생식 세포 제공자의 건강과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 3. _____ ㉡

	㉠	㉡
①	만능 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위배된다.
②	생명의 진화를 위해서 인간 유전자의 조작을 허용해야 한다.	인간의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③	생명을 가진 배아의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인간 관계의 혼란을 야기한다.
④	생명 경시 풍조의 원인이 되는 개체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난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
⑤	원하는 방식의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개체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인간 각자가 지닌 고유성과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19. 다음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3점]

갑: 불리한 처지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아 온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의 입학 정원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학에 특례를 주어야 합니다.

을: 차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 간의 공존과 발전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 차원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대학 입학 특례를 주어야 합니다.

병: 대학 입학은 오로지 대학의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자질의 기준에 따라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례는 학문적 자질을 가진 많은 학생들에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기 >

ㄱ. 갑: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입학 정원 할당제는 정의로운 제도일 수 있다.  
 ㄴ. 을: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대학 입학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ㄹ. 을, 병: 소수자 특례는 업적주의 원칙 논리를 위배하는 공정하지 못한 정책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3점]

(가) 갑: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법을 준수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준수할 것인가?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하며,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을: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합법적인 수단이 소용없을 때는 정당하게 시민 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다.

병: 시민 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다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그릇된 것일 때 가능하다.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단언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간단한 규칙은 없다. 다만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전체에 가져올 손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 ① B: 개인의 양심과 정의가 준법의 의무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간파한다.  
 ② D: 시민 불복종은 양심과 법에 반하는 공공적인 정치 행위임을 간파한다.  
 ③ A, F: 의회의 다수결로 제정된 정책이라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한다.  
 ④ B, E: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파한다.  
 ⑤ D, F: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저항이어야 함을 간파한다.

1	2	2	2	3	4	4	3	5	4
6	4	7	3	8	4	9	1	10	5
11	2	12	1	13	1	14	5	15	1
16	3	17	3	18	5	19	1	20	4